

『女性결혼退職』근본적對策을

결혼을 이유로 퇴직 강요와 직장생활의 압력을 받던 직장여성들이 본인과 주위 여성 단체의 꾸준한 시정요구로 차례로 복직되었다.

결혼후 퇴직강요를 받았으나 직장을 계속다녀서 서울서 大田으로 발령을 받았던 대한투자신탁의 朱小女씨(31)가 3월23일 서울江東지점으로 전보됐으며 결혼했다는 이유로 교사발령에서 제외된 大邱H재단 소속 K중학교사 金민자씨와 K여상 교사 張愛숙씨도

결혼자세는 80년대 초 학원 감사에 걸려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결혼자세제를 폐지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86년 초 여교사 7명에 의해 조직되어 여교사 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갖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여교사들이 결혼퇴직제에 여전히 없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71%가 이에 반발, 결혼

최근 女教師 2명 再發수등 개가 輿論에 따른 해결방식으로론 미흡

최근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 55년 창설된 H재단은 86년말 현재 중학교 7, 인문고 1, 의고 1, 여산중 주안중학교를 포함, 13개 학교를 가진 대규모학원재단으로 전체교사가 7백90명인데 그중 여교사가 3백명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단은 산하 학교 여교사들에게 취업할때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4개항의 각서를 쓰게 해왔다.

이중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후에도 계속 취업할 의향을 다. 결혼자세제 도입은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재단내 교사들에게 통신문으로 알리고 재단측에서는 결혼퇴직이 부당하다는 편지를 2차례 띄웠다. 그러나 재단측은 결혼퇴직제를 없애기보다는 이 모임의 요구사항을 결혼한 교사 2명을 지난 2월 발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결혼이 사적인 女聯會에서 선단체에 알려진 女聯이 대구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대한투자신탁의 朱小女

씨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론화되면서 결혼퇴직강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재단측에서 다시 두사람에게 발령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재단측은 아직도 이 모임과는 무관한 다른 여교사 1명에게는 여전히 발령을 유보하고 있는 등 결혼퇴직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朱小女씨는 지난 86년 초 결혼을 계기로 10년간만 재직했던 대한투자신탁에서 퇴직을



【한국의비밀지대 10곳】 특집

가성성보인 「데즈」 對佛戰

「월드테니스」 4월호

월드테니스 4월호는 한국팀이 완패했지만 한국남자 테니스의 세계진출 가능성은 확연한 韓佛대비스컵 본선 1회전 경기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본선전 경기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徐華淑기자】